

역사적 과오에 대한 단죄, 이번에는 반드시

의정단상

박수기
광주시의원



“이거는 되지라?”
“아직도 성질나서 뉴스를 안보요”
‘윤석열 탄핵’ 피켓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의 말씀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동네 사거리에서 출근시간 피켓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본격 시작한 날이다. 설 연휴 전후로 유난히 폭설이 많고 바람도 거셴다.

추위에 잔뜩 움크리고 건너면서도 한마디씩 건네신다. 내란세력 심판과 윤석열 파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단호하다. 추위에 고생한다며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병, 말없이 건네는 미소, 지나면서 찍었다며 보내는 격려 메시지와 사진에서도 바람이 느껴진다.

청산되지 않는 과오는 되돌아 온다. 우리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없었다.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

법 무산으로 처벌이 미흡했고, 12·12 쿠데타 세력은 반성없는 조기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단죄의 실패가 현재 내란의 씨앗이다.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증명하듯, 과거의 과오는 오늘의 내란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연말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12·3 내란 쿠데타와 지난 1월 사법부가 유린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가 시작되면서 대내외적 위기는 고조되는데, 국가의 외교와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12·3 쿠데타 세력과 일당들은, 급기야 사법부를 침탈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침탈과 유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웅변처럼 증언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다

이들은 부산, 대구를 거쳐 이번 주말 광주 5·18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총부리를 겨누는 윤석열 지지

집회다.

신군부 피의 학살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5·18광장이다.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중요한 기회다. 대선을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몇몇 정치인들의 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보며, 시민들은 반갑지 않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에 공명할 정치인을 찾고 있다.

“이거는 되지라?”는 질문은, 지금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이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내란세력을 종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것이 민생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출근길 만난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

社說

합일점 필요한 주거용 건물 용적률 상향

소통으로 시민 삶의 질 높여야

광주시의회가 13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조례에 대해 ‘논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의회와 광주시가 용적률을 두고 힘 겨루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한 일이다.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어떻게 살릴 것이냐도 중요하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한 발 물러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용적률을 높여 광주의 취약한 중심 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옹호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조례가 규정한 광주 중심상업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광주의 지역적 특성상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낡고 밀집된 택지를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바꾼다는 의미도 크다.

그렇다고 용적률 상향이 조례의 취지대로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상업지역의 주거화는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된다. 도심과 주거지역의 배후지로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정주여건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까지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밀집된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각종 위생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의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진다. 경기침체로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100㎡의 주택이라도 높고 뽕뽕한 건물과 여유 있게 지어진 건물의 차이는 크다.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것도 과거처럼 주택을 많이 짓는 것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광주시와 의회는 소통을 통해 광주와 시민을 위한 합일점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독선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홍남순 생가, ‘인권·민주’ 상징 기대된다

7년만에 복원 공사 시작돼

‘인권변호사’인故홍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7년만에 이뤄지고 있다. 홍 변호사의 생가는 광주 공동 15번지에 위치해 있다. 홍 변호사의 생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은행나무 집’이라고 불렸다. 가옥 마당에 10m 가량의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서다.

하지만 홍 변호사 가족들의 경제사정으로 가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매입 협의와 신축 계획이 보수·보강 공사로 바뀌는 등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홍 변호사 생가 복원 공사가 착수됐다.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홍 변호사는 군부 독재 시대 양심수와 민주인사들을 위한 무료 변론 등에 헌신한 인권 변호사다. 홍 변호사의 사무실이자 생가였던 공동 15번지 가옥은 민주·인권 운동의 사랑방이자 산실이었다. 이곳에서는 재야의 민주 인사들과 민주화운동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당시 민주·인권 활동의 논의와 각종

성명서 발표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기념관을 이곳에 세우는 이유다. 주변에는 구 전남도청과 구 상무관, 녹두서점 옛터, 광주 YMCA 옛터 등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공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민주·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기릴 가치는 충분하다. 광주시는 홍 변호사의 생가에 시비 10억원을 들여 홍 변호사의 생애와 활동, 당시의 생활상이 담긴 체험형 기념관을 만들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업무를 봤던 공간과 유물을 활용해 시대상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시국 사건과 민주화운동까지 다룰 계획이다.

지난 연말 계엄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헌법 수호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혼돈에 빠뜨려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5월 광주가 꽃피운 민주주의는 굳건했다. 국회의 계엄 철폐로 2시간 만의 그의 야욕은 무산됐다. 국가 대한란 속에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생가 복원과 기념관 추진으로 민주주의에 평생을 바쳤던 홍남순의 발자취가 많은 이들에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찰스 3세(왼쪽) 영국 국왕이 12일(한국 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아 남자팀 주장 손흥민(오른쪽)과 여자팀 주장 베서니 잉글랜드로부터 황금 수탉 조각상을 선물로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진일보 @jnlibo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libo.com

서석대

“한국의 사찰이 세계인이 지켜볼 월드컵 최대의 볼거리가 될 것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6개월여 앞둔 2001년 12월의 어느 날, 서울 수유동 화계사 성광 스님이 외국인 유를 위한 템플스테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월드컵을 앞두고 취약한 관광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전통사찰이 보완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가능성을 알아본 문화관광부는 즉시 10억원의 예산을 만들었고, 이듬해 광주 중심사와 무각사, 해남 대흥사·미황사,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등 전국 31개 고찰을 템플스테이 사찰로 선정했다.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었다.

2022년 제작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주인공 ‘서래’와 ‘해준’이 고찰에서 보낸 템플스테이다. 조계산 북서쪽, 송광사에서 만난 두 사람이 보여준 비 내리는 절 집의 고즈넉함은 영상미의 압권이었다. 서래의 고백이 이뤄진 우화각, 서로의 고백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침계루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듯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송광사를 선택했다’는 박 감독의 인터뷰처럼 아름다운 풍광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절 집에서의 만남은 영화를 영화답게 만든 최상의 선택이었다.



변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비우는 템플스테이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으로 하는 발우 공양,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율령, 고요한 사유로 해탈의 길을 찾는 참선 수행도 ‘진짜 한국’을 맛보는 소중한 시간이다. 바람소리, 물소리, 예불소리 등 절 집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도 도심에서는 얻기 힘든 새로운 경험이다. 숲 체험이나 갯벌 탐사, 야생늪차 만들기 등 체험형부터 자연과 호흡하고 참선이나 예불 등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휴식형까지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템플스테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이용자가 6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조계종도 템플스테이의 핵심 콘텐츠인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템플스테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도 새로운 변화다. 일상을 떨치고 잠시나마 맛보는 향상심(向上心)과 돈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무욕(無欲)은 잡다한 나를 찾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다. 또 다른 한류로 떠오른 템플스테이, 한국의 21세기를 이끌어갈 템플스테이의 변화가 반갑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libo.com m.jnli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libo.com